

책 『돈키호테』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겪은 고난의 역사

불어불문학과

2015*****

유수정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금서가 된 『돈키호테』
 - 1. 스페인에서 『돈키호테』가 금서로 지정된 이유
 - 2. 칠레에서 『돈키호테』가 금서로 지정된 이유
- III. 불온서적으로 규정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1. 당시 한국 사회
 - 2. 한국 사회의 부조리가 나타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문구는 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준다. 지배세력들은 이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철옹성 같은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책들을 검열하고 통제했다.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책들은 ‘금서(禁書)’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관한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했으며, 사회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지배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혜택을 지키기 위해 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금서는 이런 기득권에 의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억압하고 그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금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금서의 유구한 역사는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금서의 존재 이유와 그 피해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사례이다.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시키고 황제가 된 진시황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다. 강력한 법치를 원했던 진시황은 다른 사상을 모두 핍박하였고 그 중 으뜸은 군자의 도덕성과 덕치를 주장하는 유가 사상이었다. 진시황은 자신의 지배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법가가 아닌 기타 사상이 담긴 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선비(儒)들을 땅에 묻어버렸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이후 진시황의 진(秦)나라가 망하고 한(漢) 왕조가 들어섰을 때 나타났다. 한나라는 진시황과는 다르게 법치가 아닌 유가의 덕치를 지배 사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시황이 유가 사상의 책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이 소실되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책들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한나라의 유학자들은 유가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지 못했고 세상에 남아있는 유가 사상 책을 찾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만 몰두하였다. 만약 유가 사상의 책들이 계속 보존되어 있었다면 유가 사상은 더욱 발전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금서는 특정 목적으로 인해 생겼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있다. 스페인 작가가 쓴 『돈키호테』와 우리나라의 조세희 작가가 집필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또한 이런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 『돈키호테』는 중세 시대에 금서로 지정되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비록 금서로까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 에서는 책 『돈키호테』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무슨 이유로 억압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금서가 된 『돈키호테』

현재 『돈키호테』는 죽기 전에 꼭 읽어 봐야하는 책으로 손꼽힐 정도로 인정받는 명작이다.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가 17세기 초에 발표한 이 소설은 당시 스페인의 현실을 반영한 일종의 풍자소설이지만, 그 독창적 발상과 심오한 상징성으로 인하여 세계인의 영원한 고전이 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이 소설을 가리켜 “스페인 문학의 유일한 걸작은 다른 모든 작품을 조악한 것으로 만든다.”라며 극찬했고, 티보데는 ‘인류의 책’이라고 불렀다.”¹⁾ 이처럼 지금은 명작으로 칭송받지만 『돈키호테』도 과거 억압받는 시절이 있었다.

1. 스페인에서 『돈키호테』가 금서로 지정된 이유

스페인 금서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종교를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당시 스페인 사회에서 검열의 주체는 종교 재판소였고 검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주로 종교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 시대 초반에 검열의 대상이 되는 서적들은 문학작품이 아닌 대부분 성경에 대한 주석서와 기도서들이었다.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은 스페인이 절대왕정 시기에 진입하면서 시작된다. “문학과 검열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던 전체주의의 시대와 문학작품의 대량복제가 가능한 ‘출판의 시대’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²⁾되기 때문이다. 종교 서적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면서 책 속의 종교적 내용이 문제되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스페인에서 1640년에 금서목록에 그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17세기의 스페인은 펠리페 국왕 치하의 스페인 황금세기였다. 이 시기에 문학작품도 검열의 대상이 되면서 『돈키호테』가 금서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 역시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다. 『돈키호테』가 금서로 지정된 이유는 책 속의 ‘성의 없는 자선 사업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이 한 문장 때문이었다. 이 문장이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성직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중세 시대는 암흑기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종교의 타락에 있다. 중세 암흑시대라 하면 로마 가톨릭의 부패로 1천 년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일컫는데,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권과 부패가 만연했다.³⁾ 『돈키호테』 속 ‘성의 없는 자선 사업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이 문장은 이런 종교의 타락에 대한 비판으로 당시 검열의 주체인 중

1) “슈트라우스, 돈키호테”, 『네이버 캐스트』, (2012. 08. 3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2269>, (2015. 06. 14).

2) 김경범, 「스페인 황금세기의 문학 검열」, 『이베로아메리카연구 8』,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97, 240쪽.

3) “중세 암흑시대”,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80026&cid=50762&categoryId=51369>>, (2015. 06. 08).

교 재판소의 눈에 띄기에 충분했다.

2. 칠레에서 『돈키호테』가 금서로 지정된 이유

책 『돈키호테』의 수난은 자국인 스페인에서 그치지 않는다. 외국 칠레에서도 『돈키호테』를 금서로 지정했다. 칠레에서는 1981년에 피노체트 장군의 군사 정권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작품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호소와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공격이 담겨 있다는 판단에서였다.⁴⁾

칠레 군사 정권의 이런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돈키호테의 모험은 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모험이 개인이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는 고위 귀족, 하급 귀족, 상인, 성직자, 농부, 병사, 대학생, 방랑자, 범죄자, 공작부인, 시녀, 농부의 아내, 창녀 등 1600년경 에스파냐 사회의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한다.⁵⁾ 그 중 주인공 돈키호테는 주체성을 가지고 꿈을 향한 무모하지만 열정이 담긴 모험을 하는 자유로운 인물이다. 주체성은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을 일컫는데, 돈키호테는 일단 기사소설에 심취해 스스로 정의 실현을 삶의 목표로 설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나간다. 돈키호테가 정의 실현을 위해 방랑기사의 꿈을 설정하고 모험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돈키호테의 이런 주체적인 면모는 칠레의 군사 정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주체적, 자주적인 것은 결국 자유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호소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공격 또한 담겨 있다. 앞서 말한 ‘정의 없는 자선 사업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문장이 당시 종교의 권위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돈키호테』에는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비판이 책 곳곳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칠레 군사 정권은 『돈키호테』를 금서로 지정했다.

Ⅲ. 불온서적으로 규정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금서는 존재했다. 우리나라는 스페인과 같이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칠레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서를 지정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우리나라의 많은 저항문학이 금서로 지정되었고 문인들이 탄압받았다. 그리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독재를 비판하는 서적을 금서로 지정해 탄압했다. 이 시절에는 사회 부조리에 좌절해 절필하는 문인들도 있었다.

최근에 영화 ‘변호인’을 계기로 과거 금지서적에 대한 관심이 생긴 적이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등장했는데 영화에서는 ‘불온서적’으로 언급되었다.⁷⁾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금서로 지정된 적은 없다. 책이 금서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집필자 조세희 작가는 “이미 ‘난 쏘공’이 너무 많이 읽혔기 때문에 정권이 때를 놓쳤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⁸⁾ 이처럼 비록

4) “시대를 잘못 타고난 책들”, <서울시립대신문>, 2009. 09. 16, <<http://m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5734>>, (2015. 06. 08).

5) “돈키호테”,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3611&cid=41773&categoryId=41779>>, (2015. 06. 08).

6) “주체성”,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985800>>, (2015. 06. 14).

7) “십수년 전 금서목록…영화 ‘변호인’ 계기로 재조명”, <중부일보>, 2014. 01. 13,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746>>, (2015. 06. 14).

금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판매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1. 당시 한국 사회

그 당시 한국 사회는 혼란의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나아가던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이런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든 날을 살아갔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은 7~80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항거하여 분신자살을 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 외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죽음 역시 당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 한국 사회의 부조리가 나타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총 12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 특히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는 철거민 문제를 재기한다. 작품 속 주인공 가족들은 철거민으로 이들에게 입주권이 주어지지만 가난한 철거민들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아 입주권을 팔아넘긴다. ‘난장이’ 일가로 대변되는 소외된 계층과 공장 근로자들의 부당한 노동 조건, 투기업자들의 횡포를 통해 산업 사회의 병폐와 가진 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⁹⁾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에는 앞의 ‘난장이’ 가족이 계속 등장한다. 난장이 아버지는 집이 철거될 때 자살해 죽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은강 그룹에서 일을 한다. 이들은 하루 아홉 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한다. 이렇게 은강에서 생존을 위해 죽어라 일하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의 부적절한 지급과 동료의 부당 해고 문제 등의 부조리를 겪는다. 한편, 이 작품에는 현재 난장이 가족들이 사는 곳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독일의 난장이 마을 릴리푸트읍이 등장한다. 이 마을에는 억압, 불평등, 공포가 없다. 이 작품 속에 반영된 한국 사회는 이 가상 마을과 대비되면서 찌푸리는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착취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는 기업의 착취 행태가 더 잘 드러난다. 난장이 가족들은 여전히 은강에서 힘들게 일을 한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사고로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끌려갔고 많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했다. 노사 간의 회의가 열렸지만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마지막 말인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었다. 은강에서는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¹⁰⁾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신조차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만 같은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는 이처럼 당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당시 한국 사회를 비판한 이 작품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지배세력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8) “난쏘공이 30년 동안 읽힐 줄은 몰랐다”, <조선닷컴>, 2008. 11.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2/2008111200007.html>, (2015. 06. 14).

9) 김용수 외, 『현대 산문의 모든 것』, 꿈을 담는 틀, 2014, 442쪽.

10)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0, 234쪽.

IV. 나오며

지금까지 책 『돈키호테』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지배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혜택을 지키기 위해 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금서는 이런 기득권에 의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억압하고 그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돈키호테』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역시 같은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었다.

지배세력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서적을 금서로 지정한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금서가 시대와의 불화를 알리는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라는 것이다.¹¹⁾ 시대의 부조리를 반영하고 있고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책에 담겨있기 때문에 금서로 지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금서의 의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금서로 지정됐던 『돈키호테』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가치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돈키호테』에는 당시 종교의 권위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호소가 담겨져 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70년대 결과지향적인 한국의 산업화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두 권의 책 모두 지배세력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 담겨있다. 이 두 작품은 과거에는 각각 금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지만 『돈키호테』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한국 사회 부조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서 과거 금서로 지정됐던 책들의 제제가 풀렸고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금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금서들이 과연 진정한 ‘금서’인지 고찰해봐야한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0.

Miguel de Cervantes,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민용태 역, 창비, 2012.

Miguel de Cervantes,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2』, 민용태 역, 창비, 2012.

2. 단행본

김용수 외, 『현대 산문의 모든 것』, 꿈을 담는 틀, 2014.

백승중, 『금서, 시대를 읽다』, 산처럼, 2012.

베르너 폴트, 『금서의 역사』, 송소민 역, 시공사, 2013.

3. 국내 논저

김경범, 「스페인 황금세기의 문학 검열」, 『이베로아메리카연구 8』,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97.

11) 백승중, 『금서, 시대를 읽다』, 산처럼, 2012, 4쪽.

4. 기사

“시대를 잘못 타고난 책들”, <서울시립대신문>, 2009. 09. 16, <<http://m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5734>>, (2015. 06. 08).

“십수년 전 금서목록…영화 '변호인' 계기로 재조명”, <중부일보>, 2014. 01. 13,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746>>, (2015. 06. 14).

“난쏘공이 30년 동안 읽힐 줄은 몰랐다”, <조선닷컴>, 2008. 11.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2/2008111200007.html>, (2015. 06. 14).

5. 사전

“슈트라우스, 돈키호테”, 『네이버 캐스트』, (2012. 08. 3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2269>, (2015, 06, 14).

“중세 암흑시대”,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80026&cid=50762&categoryId=51369>>, (2015. 06. 08).

“돈키호테”,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3611&cid=41773&categoryId=41779>>, (2015. 06. 08).

“주체성”,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985800>>, (2015. 06. 14).